일본강소기업 No.35

가츠론(カツロン)
참 독특하네요!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大阪府東大阪市下小阪3-8-6
- 분 야 : 수지 소재 응용 제품 제조
- U R L : http://www.katsulon.co.jp

2) 기업 소개

□ 실적 유지

○ 이 회사는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한 결과 독자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음

- 수지 소재 응용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플라스틱 이형압출(異形壓出)[1] 기술을 활용하여 다품종소량의 주문생산을 전개하고 있음

- 도어 패킹과 컨테이너 도어용 패킹, 방수 패킹, 완충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취급 제품은 무려 5,000여종에 달함

○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자재, 사무자동화 기기, 자동차 업계 등 약 150여개의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

1) 이형압출(異形壓出) : 물건을 찍어 내기 위한 틀이 특별히 다른 모양으로 된 압출 성형. 창틀과 같이 굴곡이 심하고 턱이 많은 제품을 만드는 방식임

- 재료비 인상으로 이익을 압박하는 요인이 여전하지만 여러 업계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체질을 유지하고 있음

- 한편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

□ 초콜릿에서 시작한 사업

ㅇ 사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의 원점은 초콜릿이었으며 그 이후 비닐호스를 만들었고 해상 컨테이너 문에 사용되는 방수 패킹 등으로 생산 제품의 영역을 넓혀 갔음

- 대표적인 기술은 3차원 하이브리드 공법인데, 사출성형과 압출성형의 장점을 융합시켜 실현한 기술임

- 구체적으로는 사출성형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술을 극복하는 한편, 압출성형으로 어렵다고 정평이 나있던「정밀한 3차원 구조」에 성공했음

ㅇ 이 공법은 이시카와 사장이 1990년에 뇌출혈로 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 재활 훈련에 사용했던 바닥이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진 슬리퍼가 힌트가 되었다고 함

- 돌기 부분의 높이를 확보하여 매트 모양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상품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발에 착수하였고, 당시에는 돌기 높이가 10mm가 한계였음

- 사출 성형 형태를 수십 장 깔아 놓고 금형의 이동과 수지의 충전 속도를 연구하면서 개량을 거듭한 결과, 돌기 높이를 50mm~

100mm까지의 제품을 연속해서 성형할 수 있는 공법을 1997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음

□ 4가지 개발 테마

○ 3차원 하이브리드 공법을 사용하여 잔디보호제인 '터프 파킹' 과 테마 파크와 골프장 등의 옥외 도로에 설치하는 '라쿠라쿠로드' 를 상품화했음

- 다양한 연구개발과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7년에는 일본 경제 산업성이 뽑은 우수 중소기업 300사에 선정되기도 했음

- 2010년 매출액 50억 엔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공장 재편에도 착수할 계획임

-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대기업과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차세대 연구 테마를 설정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

□ 쉴 수 없는 투자

○ 지금도 신기술·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

- 과거에 3,000만 엔이 넘는 개발비를 한 순간에 날려버린 쓰라린 경험이 계기가 되어 압축성형 분야에서 신기술을 창조해 낸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임